



등글게 둘러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첨병첨병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관련기사 4면

### 03

#### 안산의 자부심① - 청문당

시민들이 자부심 가질 만한 역사나 문화재, 인물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한다. 이번에는 조선시대에 1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문인·문객들의 학술교류가 왕성했던 부곡동 청문당을 소개한다.

### 04

####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대부광산 퇴적암층

신비로운 풍경에 공룡 발자국 유적까지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다. 역사·생태 교육장으로 조성해 관광객을 유입함으로써 자연문화유산을 제대로 활용한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 08

#### 텔런트 이광기, 안산관광홍보대사 위촉

평소 캠핑족으로 유명한 텔런트 이광기 씨가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화랑오토캠핑장에는 '이광기 캠프존'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 12·13

#### 대부도의 매력에 빠져들다

대부도에 가면 아시아 와인 콘테스트 금상과 우리술 품평회 최우수상 수상에 빛나는 그랑 꼬뜨 와인이 있다. 오는 9월 15일에는 전국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선정된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도 열린다.

### 18·19

#### 우리동네 소식을 전해드려요!

성포동-행정복지센터에 피어난 금잔화 고잔동-꽃향기 가득한 랜드마크 3중 세트



2018. 9. 16.(일) 08:30(9시 출발)  
안산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문의 481-3539~40)



# 안산문화광장,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다

## 그늘막 아래 물이 흐르고, 시원한 생수까지... 폭염 대책 '마련'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안산문화광장 일부를 물놀이 쉼터로 운영한다. 그늘막을 세우고 그 아래로 물이 흐르도록 했으며 워터풀(pool, 일명 풀장), 연못, 분수, 바닥분수 등 별도의 수경시설도 마련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몽골텐트 30개도 설치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말에 방문한 안산문화광장에는 더위를 피해 집은 나선 시민들이 많았다. '워터풀'이라 불리는 풀장에는 아이들이 튜브를 타며 물장구를 쳤고, 함께 온 부모들은 몽골텐트에 앉아 자녀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무지갯빛 조명을 배경으로 물이 쏟아지는

'낙수 브리지(bridge)' 앞에 행인들의 걸음이 멈췄고, 야외 스탠드가 있는 '선크(sunken, 움푹 들어간) 광장'에 마련된 바닥분수에서는 아이들이 언제 튀어오를 지 모르는 물줄기를 쫓으며 신나게 웃었다.

바닥분수는 50분 동안 물을 내뿜고 10분 동안 쉰다. 그 사이에는 옆에 설치된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진다. 아이들은 몸을 씻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다가도 바닥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바닥분수의 리듬에 몸을 맡기곤 한다.

상록구 사동에 사는 조현경 씨는 "남편 모임 후 귀가하는 길에 잠시 들렀어요. 열대야 때문에 뒤척이는 여름밤, 아이들이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고나면 기분 좋게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여름 문화광장 물놀이 시설을 애용하는데, 올해는 시원한 생수도 마련돼 있네요. 해가 갈수록 시설이 좋아져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좋네요."라고 했다.

안산시는 시민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관리사무소와 바닥분수 앞 냉장고에 하루 600명의 '상록수(水)'를 무료로 제공, 물놀이객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편하게 갈증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안산문화광장에서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공연으로 한여름 밤의 여유를 선물한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안산시, 어린이급식소 순회 방문

## 폭염 대비, 식중독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강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식중독 위험을 막기 위해 안산시는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안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더위가 한 풀 꺾이는 9월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안산의 유치원 12곳과 어린이집 443곳, 지역아동센터 6곳 등 461개소를 대상으로 세균 수 측정기(ATP)를 활용한 위생수준 진단과 개선방향 도출,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을 위한 순회 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순회 방문에서는 조리시설과 조리기구의 청결 상태, 식자재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 조리사의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와 조리종사자 위생교육도 병행한다. 지난 8월 8일과 9일에는 식중독 예방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뮤지컬 공연으로 안산의 어린이 2천500명에게 예방법을 교육했다.

식중독은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등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독성물질이 있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인체의 반응이다.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을 동반하는데 ▶올바른 손 씻기를 포함한 기본적인 위생관리 ▶칼 · 도마 등 조리도구 · 기구의 철

**식재료 구입** ⇨ 1. 필요한 양만큼만 유통기한을 확인해 신선한 식물을 구입한다. : 식재료 구입순서 :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 과일, 채소 → 햄, 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 육류 → 어패류

2. 구입 후 운반 · 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 아이스 팩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 냉장상태로 차갑게 운반한다.

**조리할 때** ⇨ 1. 조리 전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2.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세척에는 채소, 과일 등 주변 식재료에 물이 튀지 않도록 한다.

3. 조리 되지 않은 식품과 조리 된 식품은 칼 · 도마를 구분해 사용한다.

4. 육류, 가금류, 계란, 수산물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힌다.

### 식중독 예방 요령



저한 세척과 소독 ▶날고기, 계란, 어패류 등 오염 발생 가능한 식재료의 분리 보관 ▶육류 어류 조리 시 적절한 온도에서 가열 ▶조리음식은 즉시 섭취하거나 2시간 이내 섭취 등 식중독 예방 기본 수칙을 따르면 식중독 없는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2237)  
백미란 명예기자\_whity218@naver.com

**택배 이제 편하게 받아보세요!**

안산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서비스가 있습니다.

\* 이용시간 : 24시간 언제나

\* 이용료 : 48시간 무료 이용 (48시간 초과 시 24시간마다 500원씩 부과)

택배 수령장소를 아래 주소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 주소 끝에 '무인택배함'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설치장소	주소	상세위치
본오도서관	상록구 각골로 49 무인택배함	현관 출입구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단원구 와동로 118 무인택배함	복지관 건물 옆면(마출소 방형)
선부2동행정복지센터	단원구 지곡로 46 무인택배함	동행복지센터 보조출입구
시랑경로당	상록구 정재로 28 무인택배함	공원방향 측면
선부달미경로당	단원구 화정천서로 49 무인택배함	공원방향 측면
해양동주민자치센터	상록구 한양대학로 31 무인택배함	대로방향 측면
이동행정복지센터	상록구 이동로 46 무인택배함	주차장 자전거보관대내

**무인택배함 이용방법**

1. 무인택배함으로 수령지 신청
2. 무인택배함에 택배 도착  
수취인에게 보관함 번호, 비밀번호 문자로 발송
3. 수취인 인증 후, 택배함에서 물품 수령

※ 주문 시 휴대폰 번호는 실제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안심번호는 피해주세요. 택배 도착 문자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산의 자부심 시리즈1

“살아서 거주하는 곳은 안산이 최고(生居最設安山如)”라고 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말이다. 그만큼 천년고도(千年古都) 안산은 ‘살기 좋은’ 지역이다. 지명에 ‘편안할 안(安)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하기도 했으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이 자부심 가질 만한 역사나 문화재, 인물들을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조선시대, 안산에는 책이 넘치도록 많았다

# 1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청문당, 문인들의 교류 장소이자 실학의 산실 성호 이익과 표암 강세황도 각각 수 천 권의 장서 보유



안산은 책과 학문의 도시였으며, 문인들의 교류 공간이자 실학의 산실이기도 했다. 특히 민간 도서관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 1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했던 청문당(현 상록구 부곡동 소재,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이 대표적이며,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경성당도 상당한 장서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 고증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하지만 “전국 4대 장서각 중 2곳이 안산에 있었다.”는 학설이 오랫동안 전파되기도 했다. 안산의 청문당과 경성당 그리고 충북 진천의 완위각과 월사 이정귀의 고택(현 서울 명륜동 소재)이 조선시대 4대 장서각으로 꼽혔었다.

### 전국 각지의 문인과 묵객들이 모여들던 청문당

청문당은 상록구 부곡동 가미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수인산업도로 인천 방면과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약 1km 정도 안쪽에 있다. 마을 뒤편에는 수리산의 지맥인 낮은 야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오천(午川)이 흐른다.

진주 유씨의 세거지인 이곳에 청문당이 지어진 배경에는 조선 선조의 딸인 정정옹주가 있다. 정정옹주는 유적(柳頤)과 혼인하기로 약속했었으나 시아버지 유시행이 세상을 떠나자 혼인을 미루고 삼년상을 치렀다. 애초 유시행은 선산인 충북 괴산에 문힐 계획이었으나 ‘서울에서 너무 멀고 왕가의 장지는 100리(40km)를 넘을 수 없다’는 법도에 따라 적당한 곳을 찾던 중 ‘살기 좋은’ 안산을 선택했다. 이후 정정옹주가 14세 때, 이번에는 아버지인 선조가 승하해 다시 삼년상을 치러야 했고 이후 1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혼인을 올릴 수 있었다. 이후 진주 유씨는 임금으로부터 받은 넓은 토지와 바닷가의 어업·염전권 등을 기반으로 안산에 세거하며 많은 인물들을 배출, 조선 후기 기호남인(畿湖南人)의 3대 가문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됐다. 특히 유적은 임금의 사위(부마)가 되었고, 조카인 유명건, 유명천, 유명현 등 3형제는 참판 또는 판서에 오르기도 했다.

조선 후기 청문당은 남인 문사들의 교류 장소였으며 나아가 실학의 산실이 되었다. 특히 1만 권의 책이 저장된 만권루가 중심이었다. 특히 강세황의 처남인 유경중은 청문당을 중심으로

‘오천시사(午川時社)’를 결성했으며, 이곳에는 전국 각지로부터 문인과 묵객들이 모여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부곡동 모임 ‘오천시사’에 대해서는 안정복, 채제공, 강세황의 시(詩)를 비롯하여 여러 편의 기(記, 기록)·서(序, 서문)·발(跋, 발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청문당은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주거 및 정원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공간 구성은 물론 건축기법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건축문화재이다.

### 시, 체험프로그램 ‘청문당에서 조선시대를 바라보다’ 운영

시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청문당 북콘서트 ‘현대인, 책과 음악에게 묻다’ △초등학교 대상 ‘화공(畫工)이 되어 만나는 강세황’ △자유학기제 연계 ‘만권루 스토리텔링 진로탐험’ △대학생 1박2일 ‘헬로, 청문당’ △생생문화재 기획전시 ‘청문당 그리고 시·서·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 유명천·유명현 형제가 공부하던 곳, 경성당

경성당 또한 현재 부곡동에 위치해 있다. 경성당의 전면 안산 끝자락에 청문당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래는 종가인 청문당과 같은 영역에 있었으나 영동고속도로로 인해 지리적으로 단절됐다. 경성당은 19세기 중반에 진주 유씨 21세손인 유신(柳愼)의 아들 유증서가 둘째 아들 유방이 살림을 날 때 지어 준 집이라고 하며, 원래 서울 남산에 있던 서실의 당호로 진주 유씨 18세손 유명천·유명현 형제가 공부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유원성이 이름을 빌려와 이기옥 사랑채의 당호로 썼다고 한다. 참고로 유명천은 공조판서·예조판서·홍문관제학 등을 역임했으며, 유명현은 형조판서·이조판서·전라도관찰사 등의 경력이 있다.

경성당은 청문당에서 분가한 진주 유씨의 작은 종가집으로 청문당과 함께 안산지역 사대부가의 주거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문화재이다.

· 사진출처 : 안산문화원



##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신비로운 풍경에 공룡 발자국 유적까지... “문화적 가치 높다”

### 역사·자연생태 교육장으로 관광객 유입,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 될 것

경기도 기념물(제194호)로 지정된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단원구 선감동 산147-1, 이하 퇴적암층)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퇴적암층 주변에 전망 데크 2개소와 탐방로, 잔디광장 등을 조성했다.

대부도의 남동쪽에 위치한 퇴적암층은 중생대 후백악기(7천만 년 전후)에 생성된 곳으로, 1999년 암석 채취 중 초식 공룡 ‘케리니키리움’의 발자국을 포함해 총 23개의 공룡 발자국과 식물 화석 ‘클라도플레비스’가 발견된 유적지이다.

서울 근교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층을 볼 수 있으며, 인근 화성의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돼 당시의 식생 및 환경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질층이다. 누에섬전망대, 안산어촌민속박물관, 탄도항, 전곡항 등과 인접해있다.

시는 안산의 대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퇴적암층 주변을 대중적으로 친근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다만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이 지니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 및 체험 행사 등과 연계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역점을 둘 방침이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탐방로와 전망대를 비롯해 교육관과 각종 체험 공간, 어린이놀이터, 공연장, 오토캠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공룡의 흔적을 찾는 유적답사코스, 탄도호의 철새와 갯벌 생물들을 활용한 생태관광코스, 경기창작센터나 미술관 등과 연계된 문화예술관광코스 등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위치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화호를 활용한 수상교통로와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자전거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섬 속의 호수’로 신비로운 풍경과 함께 자연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라며 “방치돼있던 퇴적암층을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유인할 계획으로, 이는 대부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자연문화유산 활용의 좋은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3436)

INTERVIEW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뢰하고 고마워해... 부모 마음 다 똑같다”



허병순 원장

전국 최대 다문화도시인 안산시는 지난 7월부터 등록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총 550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600여 명에게 매월 22만 원을 지원 중이다. 이후 만 0~2세 영·유아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학비도 지원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지역 내 97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

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 276여명(병설 124명, 사설 152명)에게 각각 6만 원과 22만 원의 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안산에서 노동활동을 하며 생계를 꾸리는 외국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보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긍정적 결과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원 98명 중 외국인 아동이 20명에 달한다는 단원구 선부2동 강·산·해 어린이집 허병순 원장은 “태어나는 아이들이 해마다 줄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경영구조에서 외국인 아동 입학은 여러 면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아동기 투자 효과는 성인기의 몇 배에 달한다는 말은 외국인 아동에게도 똑 같이 적용된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서 한시름 놓아 안정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고,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난 아이들은 한국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 그들 나라로 돌아간 뒤에도 긍정적 한국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말을 하고 한국식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이후 한국인과 정서를 공유하기도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허병순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Q 외국인 아이들이 언제부터 들어왔나?

4년 전이다. 국적은 한국이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린이집을 4년 동안 다니다 초등학교로 진학했는데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는 러시아 어린이 5명과 인도네시아 어린이 1명, 중국 어린이 14명이 재원 중이다. 한국 아이들과 함께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 입학금, 보육비도 같다. 3세 37만 원, 4세 37만 원, 5세 30만4천 원, 6세 28만 원, 7세 28만 원이다. 3,4세를 제외한 5,6,7세 아이들이 매월 22만 원씩 안산시로부터 지원받아 16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 Q 외국인 부모들의 반응은?

신뢰하고 고마워한다. 한국식 교육을 원하는 외국인 어머니들은 시야가 트인 분들이다.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 같다.

### Q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

외국인 아동이 입학하게 되면 지원서를 받아 시 보육정책과에 보낸다. 등록 외국인임이 확인되고 아이사랑 카드가 발급되면 매월 14일 전후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그 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한 후 5세 8만4천 원, 6,7세 6만 원의 차액만 내면 된다.

### Q 어린이집의 입장은?

시 지원이 반갑다. 회비 문제로 어머니들과 시비할 일이 없어졌다. 안산에서만 한 해 20여 곳의 어린이집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다. 선부2동 지역은 외국인 아동 덕분에 9곳의 어린이집이 그럭저럭 꾸려나가고 있다.

◇ 문의 : 강·산·해 어린이집(031-401-3337)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라꽃 사랑하는 마음이 곧 애국심” 무궁화 연대, 호수공원에서 무궁화축제 열어

8·15광복절 73주년을 앞두고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활짝 폈다. 8월11일 단원구 호수공원 무궁화동산에서 진행된 무궁화축제가 그것으로, ‘겨레의 얼’인 무궁화를 사랑함으로써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넓혀가자는 취지다.

올해로 11회 짝인 무궁화축제는 지난 2007년 한국가스공사 봉사동아리 ‘한다솜’회와 안산의 자원봉사자들이 연대해 200여 품종 7백 그루의 무궁화를 심어 동산을 조성한 후 축제를 개최한 것에서 시작했다. 특히 축제에서는 유치부·초·중·고등부 학생이 참가하는 무궁화 그리기 대회와 꺾꽂이(식물의 영양기관인 가지나 잎을 잘라낸 후 다시 심어서 식물을 얻어내는 재배 방식) 포트 묘 나눔 행사, 무궁화 사진 전시 등도 함께 열려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무궁화연대 회원들은 10만 그루의 무궁화가 피어나 동산이 확장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기 대회에서 그림을 제출한 모든 참가자에게 해마다 2천 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나눠주고 있으며, 안산시행복예절관은 무궁화 잎으로 만든 떡과 차, 정과 등을 마련해 축제 손님들을 대접한다.

“전국적으로 무궁화동산이 많지 않은데 내가 사는 안산에 이런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감동”이라는 김복희(안산동·60) 씨는 “무궁화에 담긴 의미도 깨닫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훌륭해 매년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순예(안산동·67세) 씨는 “안산에 무궁화동산이 있다는 것을 몇 해 전에 알았는데 매년 축제가 열리는 건 지난해에 비로소 알게 됐다.”며 “2년 연속으로 축제에 와서 무궁화에 대해 세밀하게 알게 돼 참 좋다.”고 했다. 현재 무궁화동산에는 250종 3천여 그루의 무궁화가 아름다운 꽃을 다채롭게 피워낸다. 무궁화는 6월부터 10월까지 지고피기를 반복한다. ‘배달계·아사달계·백단심계·홍단심계·청단심계의’ 무궁화가 ‘선녀·소울·사임당·백조·눈보라·배달·평화·아사달·화합·화랑·한마음·한보람·일편단심·순정·아리랑·설단심·통일·충무·영광·삼천리·늘사랑·내사랑·첫사랑·동해’ 등의 이름으로 피어난다. 눈보라처럼 하얗게 일편단심의 기쁨으로.

◇ 문의 : 무궁화연대(010-9004-7603)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세계외발자전거대회, 안산에서 13일 동안 대장정

### 34개 나라, 1천200여 명 참가… 트랙·프리스타일 등 경기 치러



전 세계 외발자전거 마니아들의 축제, 제19회 세계외발자전거대회(UNICON 19)가 안산에서 열렸다. 7월29일부터 8월10일까지 와~스타디움, 화랑유원지, 와동체육관, 대부도 등 안산의 곳곳에서 경기가 치러진 이번 대회는 외발자전거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올림픽으로 일본, 독일, 스웨덴 등 34개국에서 1천194명이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닳은 기량을 펼쳤다.

100m·400m·800m 달리기부터 벤치·계단·경사로·난간 등 도시 장애물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통과하는 스트리트(Street), 여러 섹션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트라이얼(Trials), 높이뛰기, 멀리뛰기, 한 쪽 페달에만 발을 올린 채 50m 직선 주로를 달리는 50m 한발타

기, 바퀴에 발을 올린 채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다운 힐 클라이딩, 의상·음악·안무를 연출하여 무대를 꾸미는 프리스타일, 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산악 코스를 완주하는 크로스컨트리, 42.195km 코스를 달리는 마라톤, 자전거를 탄 후 5:5 경기를 하는 농구·하키 등등. 총 6개 종목의 37개 다양한 경기가 이번 대회에서 치러졌다. 수인선 협궤열차 레일 위를 달리는 레일달리기 경기는 대회 이벤트로 새롭게 선보였다.

장장 13일 동안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참가선수들은 한 낮의 경기를 치른 후에도 밤늦도록 모여 연습에 연습을 더했다. 이와 관련 한 선수는 “매일 혼자 외롭게 연습하다가 나와 비슷한 기술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반기웠고, 우정을 쌓고 싶었다.”며 이번 대회는 “사람과 외발자전거가 바퀴 하나로 의지하며 화합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코닉 카터(Connic Cotter) 세계외발자전거대회 조직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이 대회가 열리기를 오랫동안 원했고 그 꿈이 실현됐다.”며 “참가자 모두가 위대한 경험을 통해 안산시의 모든 것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커다란 추억과 위대한 우정을 간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런 세계적인 대회가 우리 안산시에서 열림으로써 우리 시가 선진 스포츠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바다와 숲이 있는 안산에서, 참가자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49)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지역 로컬푸드로 브랜드 가치 올리는 (주)바다향기 좋은 재료에 정성 쏟으며 안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우뚛'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영양과 신선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로컬푸드(지역 농산물)' 운동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커피와 초콜릿에도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이 사

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등 소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산물인 포도를 활용해 안산 대표 상품을 만들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주)바다향기를 방문, 김용득 이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대표는 김 이사의 아내인 이주희 씨다.

인물화를 그리던 서양화가 이주희 씨는 초콜릿과 빵을 즐겨 만들어 먹다 제빵 관련 요리를 출간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포도 원액을 넣은 초콜릿을 상품화했다. 예비 사회적기업 (주)바다향기의 시작이었다. 이후 포도 농사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포도고추장을 개발, 2015년 2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바다향기' 상표를 등록하고 안산의 대표상품으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다.

바다향기 포도고추장은 찹쌀이나 밀가루가 아닌 포도로 만든 효소를 주원료로 개발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상품이다.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캠벨 포도는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 껍질

째 효소를 만들어 걸러낸 후 고춧가루, 물엿 등을 넣어 저염 방식으로 제조한다. 이미 발효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숙성시키지 않아도 된다. 열을 가하지 않아 효소가 살아있는 상태로 밥상에 올려 먹을 수 있는 포도고추장은 과일을 먹은 듯 깔끔하고 개운하다. 또, 맵지 않아 스테이크나 돈가스 소스로도 어울리며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는다.

이주희 대표는 지난 6월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갈대 담은 된장'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김 이사는 "갈대습지공원(안산 상록구 소재)과 인근 해안에서 자라는, 정화력이 뛰어난 갈대를 발효시킨 엑기스를 활용한다. 갈대 담은 된장은 중금속을 걸러주며 피를 맑게 해주는 특징이 있어 포도고추장과 함께 안산의 자존심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바다향기 제품들은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청 매점, 광고 비즈니스센터에서 전시·판매되고 있으며 반월·김포 로컬푸드, 경기남부 일원 생협 13곳과 올 5월에 개장한 '대부도 특산물 아웃렛'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바다향기는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들에게 초콜릿과 치즈 만들기, 포도고추장 담그기 체험과 함께 대안학교 등 청소년 진로교육과 창업반/취미반을 운영하는 등 교육 사업도 진행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있다.

◇ 문의 : (주)바다향기 (070-4114-301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청년창업의 꿈

###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②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 '더 나은 세상을 디자인하는' 1인 기업 '로카(Loka)'

### 한국적 디자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잇는다

팝아트 초상화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민화(民畵)풍 초상화를 그리는 청년 디자이너가 이색적이다. 부모님, 가족, 부부, 연인,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민화풍 초상화에는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다. 거기에 전통매듭으로 핸드폰고리와 브로치를 제작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재미를 세상에 알리는 1인 기업이 있다. '로카'의 김명순 대표를 만났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것보다 서양의 것을 더 좋아하고, 미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최근 케이팝(K-Pop)의 영향으로 우리 문화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한국의 정서가 담긴 디자인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김 대표. 그는 건국대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했다.

텍스타일(textile)은 공예미술의 한 종류로, 원단 혹은 사진 등에 들어가는 패턴과 이미지 디자인을 공부했다. 졸업 후 신진(新進) 디자이너로 서울패션위크에 참가했으며, 섬유무역회사의 MD(Merchandiser, 상품 선정부터 출시까지 총괄하는 업무자), IT기업의 웹 디자인과 웹 개발자로 근무했던 다양한 경험을 집약해 한국의 정서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로 지난 1월 청년큐브 예대캠프에 입주했다.

김명순 대표는 '민중이 그린 소박한 그림'으로 저평가됐던 민화의 익살과 해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2회 대한민국 민화아트페어'에 참가했으며, 지난 5월에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너와 나의 민화 디자인전'을 열기도 했다.

김 대표는 디자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민으로 대표되는 똑똑한 까치들이 우둔한 호랑이를 놀리는 '호작도'를 활용해 세상을 비꼬고, 똑같은 모습의 룡 패딩을 입은 학생들이 비처럼 내리는 '한국 겨울비'라는 작품은 르네 마그리트의 '골콩드'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문자도(文字圖)인 '미투'도 독창적인 자신의 세계를 구현했다는 평가다.

김 대표가 이끄는 1인 기업 '로카(Loka)'는 '세상' '세계'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로, '더 나은 세상을 디자인하겠다'는 각오가 담긴 이름이다. 얼마 전에는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뜨겁고 따뜻한 기억을 담아 잇겠다"는 의미의 브랜드 '뜨뜻'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새로 론칭했다. 김명순 대표는 청년예술인네트워크에서도 역할을 맡아 2019년도 월피동 달력을 컬러링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그녀의 작업은 문구류, 가방, 액세서리로 진화하며 한국적 디자인의 대중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김명순 대표

◇ 문의 : 로카 <http://tt-ttt.com>(010-9787-2419)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극단 '이유'와 함께하는 연극놀이

###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감동입니다”



있고 있던 나의 꿈을 깨우는 시간, 연극을 통해 만나볼까? 극단 '이유'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안산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후원을 받아 주민과 함께 하는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연극에 관심이 있거나 연극을 통해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싶은 이들이 모여 동아리 형태로 참여한다. 수업은 연극의 기초와 몸 놀이, 연극 만들기, 낭독극 공연까지 진행된다.

회원들은 연극을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다시 키우고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배어나는 50대 중반의 한 회원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편을 만나 사랑 받으며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병으로 세상

을 떠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연극을 통해 소녀감성이 살아나는 것 같고 활력을 찾게 됐다. 늦은 나이지만 시니어모텔에 도전하고픈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연극 수업을 통해 평생을 물어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회원도 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혼자 이끌어가야 하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배우의 꿈을 키워나갔다. 당시만 해도 배우는 탄나라라는 편견이 있었고, 더구나 딸에게 그런 공부를 시킨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많았다. 그래도 공부를 원하는 딸을 위해 어려운 형편에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시던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제대로 된 배우의 길을 가지 못했지만, 다시 꿈을 이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가슴을 울린다.

극단 '이유' 김종숙 대표는 “세월이 흘러도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는다. 회원들이 연극을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고 내 안의 새로운 나를 발견하며 나아가 마을에서 활동하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극단 '이유'와 함께하는 연극놀이는 8월 29일까지 총 10회의 과정을 마친 후 낭독공연으로 마무리한다.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안산시, 반월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업체당 사업비의 70% 지원, 8월 31일까지 접수

안산시는 반월염색단지 백연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2018년 반월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염색단지 섬유·염색업종 사업장에 설치된 기존 방지시설로는 백연 및 악취제거에 한계성이 있어 보다 효과적인 시설개선을 위하여 업체당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8월 31일까지 안산시 산단환경과에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및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산단환경과(031-481-2892)

### 안산시,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구호 및 표어 공모

구호, 표어 2개 분야... 시상금 300만원 지급

안산시는 2019년 4월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의 이미지에 부합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어 및 구호를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구호 및 표어 2개 부문으로 대상, 최우수, 우수 총 6점을 선정하며, 응모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공모기간은 9월 11일까지이다. 공모주제는 '편리하고 문화가 숨쉬는 일품도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의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 이미지와 함께, 경기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체육대회의 축제 한마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기타 응모요령과 출품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6490~2)

### 안산시, BMW차량 운행정지명령 발동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156대

안산시는 최근 잇따른 BMW차량의 화재사고로 시민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안전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지난 14일까지 BMW 리콜차량 775대에 대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15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즉시 이행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명령서는 BMW차량 소유자들에게 지난 16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받으러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 문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031-481-3587)

## “지혜 모아 천천히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필요”

### ‘4.16생명안전공원 열다;전문가 포럼’ 열려

4.16생명안전공원(이하 4.16공원)의 의미를 찾고 방향을 설정해보는 ‘4.16생명안전공원 열다;전문가 포럼’이 7월과 8월에 거쳐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공원디자인, 명소화 마케팅, 장소와 기억, 운영관리, 도시재생을 주제로 4.16공원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했다.

문정석 도시연대커뮤니티 디자인센터장은 추모공원의 디자인 방향을 살펴본 후 “희생자와 유가족,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자생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으로, 함께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란수 대안관광컨설팅 프로젝트 수 대표는 다크투어리즘(역사적으로 비극적이거나 슬픈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여행하는 것)과 4.16공원을 연결, 방문자에게 철학적 물음을 던져줄 수 있는 ‘공간 브랜딩’의 조건을 설명했다.

민유기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희생자들의 못다 이룬 꿈을 기억하며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체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원이어야 한다.”며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형태의 공간과 도시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함께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정보를 공개해 갈등을 줄이면 그제야 본질에 대해 논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건축, 설계, 조경, 디자인 등 많은 전문가를 불러 지혜를 찾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내용이 만들어진다”며 “목표를 높게 잡되 날카롭게 보고, 천천히 설득하고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참석자는 “뉴욕에 9.11메모리얼 추모공원은 십 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했던 토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이번 포럼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공원이 어떤 방향과 과정을 거쳐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해볼 수 있었던 시간으로서 그 긴 과정의 첫 출발선이 보인다.”고 했다.

◇ 문의 : 4.16안산시민연대(031-483-0416)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탤런트 이광기 씨, 안산시 관광홍보대사 위촉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안산의 매력에 대해 알릴 것”



아역배우로 데뷔해 30여 년 동안 탤런트와 방송인, 문화기획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광기 씨가 안산시 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연예인들 중 캠핑을 즐겨하는 매니아로 잘 알려진 이광기 씨는 평소에도 종종 안산 대부도나 캠핑장을 찾아 여가를 즐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6일 공식적으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광기 씨는 앞으로 대부도를 포함해 도심 속 휴식공간인 화랑오토캠핑장 등 안산시의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실제 위촉식이 있던 16일 오전, 안산시청 시장실을 방문한 이광기 씨는 안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안산시 관광홍보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씨는 “(캠핑을 위해 돌아본 경험을 생각해보면) 가족끼리 와서 생태체험을 하는 것에 대한 반응들이 정말 좋다.”며 “화랑캠핑장 주변에 양이나 염소, 토끼 등 조그마한 아기동물들을 두고 시민들이 직접 풀을 먹일 수 있

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안산시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시원한 호수 옆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화랑오토캠핑장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본 이광기 씨는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안산시의 관광홍보대사로 위촉돼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홍보대사로서 안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며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안산을 방문해 추억 하나씩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안산시 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된 이광기 씨는 향후 안산시 홍보 영상 제작에도 참여하며 화랑오토캠핑장 내 이광기 캠프존 지정, 이광기와 함께 하는 캠핑 토크쇼 진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공보관(031-481-2045)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 2000년부터 2007년생까지 가능

안산시가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인 생리대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함으로써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면서 더불어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의 연령 기준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11세~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자격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지난 상반기 1차 사업에서 대상으로 포함됐던 청소년은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 희망자는 8월 한 달 동안 안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니어도 부모를 포함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물품은 소형·중형·대형으로 구성된 6개월 분량의 생리대 세트이며, 10월 중 원하는 주소지에 직접 택배로 배송된다. 단, 방문 수령을 원할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2217)



###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9월 3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접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9월 30일까지 받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전·월세 거주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그간 주거급여제도의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2인가구의 경우 1,224,252원 이하)에 적합해도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원을 받을 수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본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3148)

### 맛과 향이 어우러진 대부포도 맛보러 오세요 ~ 2018 대부 '포도 데이' 행사

안산시와 군자농협이 후원하고 안산시포도연구회가 주관하는 '대부포도데이'행사가 8월25일(토)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다.

요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캠벨얼리 품종 이외에도 유망 신품종인 청포도 '샤인머스켓'과 붉은색의 '베니바라드' 등 포도를 맛보고 구입할 수 있으며, 포도를 활용한 천연염색과 비즈공예, 그랑꼬또 와인 시음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안산시의 대표 특산품인 대부 포도는 섬 특유의 해양성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되어 향과 당도가 뛰어난 전국 최고의 포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031-481-2598)

###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로 임시청사 이전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는 현 청사가 내진보강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임시청사(대부문화센터, 대부중앙로 97-3)로 이전하여 오는 8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동은 현 청사를 국비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진대비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올해 안에 준공될 때까지 바로 앞의 대부문화센터(연면적 334㎡)를 약 5개월 동안 임시 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윤중섭 대부동장은 “이번에 청사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청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늘 대부주민과 함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대부동 행정복지센터(031-481-6947)

안산착한가게 시리즈-⑧

## 상록구 이동 강남돈까스

### 바삭바삭 씹는 소리만 들어도 입안에 침이 고인다



갓 튀겨내 바삭바삭 씹는 소리만 들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돈까스 맛집.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강남돈까스가 8월에 소개할 안산착한 가게다.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광장 맞은 편에 형성된 한대앞역 먹자골목에서만 10년 넘게 자리 잡은 강남돈

까스는 이미 지역에서 '돈까스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의 기억 속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음식이었던 돈까스. 이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흔한 메뉴가 되었지만, 막상 찾으려고 하면 맛집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강남돈까스는 국내산 보성 녹돈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육질이 부드럽고 속은 짭 차 씹을 수록 담백한 돈까스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강남돈까스 김찬옥 사장(54)은 요리사 경력 40년의 베테랑으로, 한때는 안산에서만 체인점 3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상록구 이동점은 2008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김찬옥 사장은 “장사하기 쉽게 미리 음식을 만들어 두면 좋지만 음식은 정성이라 생각한

다. 손님들에게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선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장사한다. 전철역 앞이라 젊은 손님들이 많지만 예전에 운영했던 고잔점과 선부점의 단골 분들이 여전히 잊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식당을 찾는다. 감사할 따름이다.”며 “단지 착한가게라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잊지 않고 식당을 찾아주시는 손님들 때문에 갑자기 가격을 올리자니 좀 그렇고 해서 함부로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가게를 열 때 만 해도 이곳은 먹자골목 상권이 잘 형성됐던 곳이었다. 그래서 영업 전략으로 저렴한 가격을 선보였던 건데, 10년 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어느새 손님들이 착한 맛집이라고 소문을 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돈까스에는 돈까스 외에도 오믈렛, 우동, 쫄면 등 다양한 메뉴가 갖춰져 있다. 또한 등심돈까스(6천원) 함박스테이크(6천원) 생선까스(6천원) 등 가격 부담이 적어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주문하는 경우도 많다. 명절과 매월 2회 수요일은 휴무다.

◆ 영업 : 오전 10시~오후 9시

◆ 주소 : 상록구 광덕 1로 362, 109호 (이동 한양프라자)

◆ 전화 : (031) 502-908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우리동네 착한 빵집 ‘큰숲 베이커리’

### “아름다운 소비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상록구 사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큰숲 베이커리’가 착한 소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동산복지재단의 푸른동산보호작업장이 운영하는 ‘큰숲 베이커리’는 복지시설에 서비스업이라는 사기업 개념을 더한 매장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비장애인들을 상대하며 직업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 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2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이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의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실천하는 말 그대로 ‘착한’ 빵집이다.

‘큰숲 베이커리’의 김완수 팀장은 “2014년 3월에 문을 열었는데 이제는 단골도 많이 생기고 단체로 납품하는 곳도 늘어 월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큰숲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해 빵을 팔고 있다.”라며 “장애우들의 경

제적 자립을 돕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장애인들과 경쟁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구조로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방부제를 넣지 않고 제빵실에서 매일 구워내는 천연발효 효모빵은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12시간이 지난 제품은 30% 할인해 판매한다. 좋은 재료로 질 좋고 특색 있는 신상품을 개발해 맛과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매출액과 이익금을 공유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한다.

1년 넘게 이곳을 이용한다는 김선자(본오동) 씨는 “회사가 같은 건물에 있어서 주 1~2회 퇴근길에 빵을 사러 들르는데, 장애우들이 맛있는 빵을 추천하기도 하고 친절하게 손님 응대도 잘한다.”며 “여느 제과점보다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더 뛰어나며 신선하고 품목도 다양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큰숲 베이커리’에서는 단팥빵, 소보로, 크림 단팥빵, 단팥 소보로, 찹쌀빵, 수제 초코파이, 모카빵 등 약 80여 종의 빵을 만든다. 특히 자색 고구마와 크림치즈의 환상적인 비율로 만들어낸 신제품 고구마빵에는 고구마가 듬뿍 들어 있어 입 안 가득 포만감이 퍼지며, 버터와 설탕을 줄이는 대신 견과류를 듬뿍 넣은 건강빵은 당뇨가 있는 소비자에게도 인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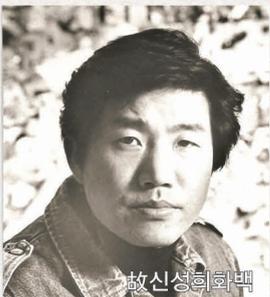
회원가입을 하면 10% 할인을 해주며, 현금결제일 경우 30%를 할인해준다. 회원에게는 월 2회 진행되는 반값 쿠폰행사 등 할인정보와 신제품 출시를 안내한다. 복층 구조로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다락방에서는 커피와 에이드 등 음료와 빵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출입문 옆에는 빵 구입 후 남은 잔돈을 쿠폰으로 기부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나눔 트리도 마련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은 휴무다.

◇ 문의 : 큰숲 베이커리 (031-415-870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미술의 도시 안산 ⑥

안산은 조선 후기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 선생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미술의 도시다. 예로부터 물 좋고 산 좋아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예술가들이 사랑한 예향의 도시였던 안산. 단원 미술관과 경기도 도립미술관 등 크고 작은 미술관에서 날마다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안산을 대표하는 현대 화가들의 작품이 지금 이 순간도 완성되고 있는 도시다. 안산을 미술의 도시로 만든 현대화가 성백주, 장성순, 정문규, 신성희 화백의 삶과 예술을 차례로 소개한다.

### 안산을 대표하는 현대화가 신성희 화백 회화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누아주' 기법 만들어 죽음 상징한 찢겨진 캔버스, 삼차원 세계로 엮어 살아나



'미술의 도시 안산'이 소개하는 마지막 현대 화가는 누아주의 거장 신성희 화백이다. 앞서 소개한 현대 화가들이 안산이 신도시로 개발되는 1990년 무렵 안산으로 옮겨 와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화가라면

신성희 화백은 1948년 안산 수암동에서 태어나 안산초등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거쳐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했다.

'누아주'(엮음)라는 미술 장르를 개척한 그는 세계 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화가로 평가받는다. 2009년 서울 소마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여는 도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영혼의 동반자였던 정이녹 여사를 만나 신성희 화백의 삶과 작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회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갈구한 삶

1969년 홍익대 회화과 재학 중 18회 대한민국예술전에서 특선을 수상하며 화단에 파란을 일으켰던 신 화백은 1980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 뒤 '누아주'라는 독특한 형태의 미술 기법을 창안했다. 누아주라는 기법을 만들기까지 그의 작품활동은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해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었다. 초기 작품은 실상과 허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회화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이뤄진 시기다. 69년 국전 특선 후 1979년까지 '마대작업'을 통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갈구했다.

정이녹 여사는 "그는 작품을 통해 실상과 허상의 벽을 넘고 싶어 했습니다. 초기 마대작업은 회화 본질에 대한 탐구 단계로 실상인 마대 위에 허상인 마대 무늬를 그리는



정이녹 여사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실상과 허상의 공존, 대비를 보여주고 싶어 했지요"라고 말한다.

회화 근원을 찾고 싶은 갈망은 근대회화가 꽃피고 현대회화의 중심지가 된 프랑스 파리로 그를 이끌었다. '서양미술의 본고장 파리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있는지 한 3년만 살아보자'고 시작한 파리생활. 3년이 30년으로 늘어나면서 그의 작품은 10년마다 더욱 정교해지고 혁신적으로 변해갔다.

“

논으로 달려가 개구리 소리 나는 곳에  
돌을 던져 팔짝 뛰어 오르면  
대나무 막대기로 단번에 쳐서 잡던,  
내 고향 안산에  
내 이름을 단 집을 하나 짓고 싶었다

”

#### 플라주, 평면 세움, 누아주 기법 회화 평면을 탈출하다

파리에서 그의 작품은 판지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조각낸 후 재구성하는 플라주(collage) 형식으로 발전했다. 신성희 화백은 이 시기 자신의 고민을 "(화폭에)갓다 놓고 싶은 것은 대체로 3차원적인 형상인데 비해 놓여질 곳은 캔버스나 종이 같은 2차원의 평면이다. 이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1985년 10월 공간지 '입방체에 담겨진 회화' 글 중에서)라고 털어놓았다.

그의 고민은 90년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일정한 크기로 박음질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평면세움 단계를 거쳐 누아주 기법으로 완성됐다.

불어로 '맺기' '잇기'라는 뜻을 가진 누아주는 엮거나 묶어 제작하는 장르를 통칭하는 단어가 됐다. 누아주 기법을 선보인 신 화백의 새로운 도전은 화단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평론가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근법을 만들어 마치 평면을 공간처럼 보이게 했다면 신성희는 캔버스가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도록 찢고 묶어서 생명을 부여한다"는 극찬을 쏟아냈다.



Peinture Spatiale

신 화백도 "나의 작업들은 찢어지기 위하여 그려진다. 찢어진다는 것은 이 시대 예술에 대한 질문이며, 그것이 접히고 묶어지는 것은 곧 나의 답변이다.(중략) 찢어진 그림의 조각들은 나의 인식과 표현의 대상들이 죽었다는 것의 증거물이다. 나의 두 손은 이 증거물들을 다시 불러 일으켜 바람이 오가는 빈 공간의 몸예측할 수 없는 신경조직을 새롭게 건설한다"(2001년 갤러리 현대 전시회 카달로그)고 말했다.

#### 30년 타국살이 고향 사랑도 깊어

아들은 건축가로 딸은 의상 디자이너로 아버지의 작업 스타일을 이어가고 정 여사는 신 화백의 환희와 기쁨, 고뇌가 담긴 작품들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갤러리 현대와 함께 Amoy(뉴욕), Fize(뉴욕, 시카고, 런던), FIAC(파리) Art Fair도 참가한다. 올해는 LA에 있는 Blum & poe Gallery에서 개인전을, 10주기인 내년에는 국내 갤러리 현대에서 전시회도 기획 중이다.

지난 2015년에는 그의 작품이 고향 안산을 찾아왔다. 단원 미술관에서 '신성희 고향에 돌아오다'전이 열린 것이다.

정이녹 여사는 "누구나 고향을 떠나 있으면 더 그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 화백은 늘 '우리집 뒷마당이 향교와 맞닿아 있었고 담도 없었다'고 말했죠. 수락산(수리산)에서 고사리 뜯던 이야기, 산나물 캐던 이야기, 독수리 새끼를 풀숲에서 발견하고 닭장에서 키우느라 학교가 끝나면 책가방 내려 놓고 곧장 앞으로 달려가 개구리 소리 나는 곳에 돌을 던져 팔짝 뛰어 오르면 대나무 막대기로 단번에 쳐서 잡던 이야기 등을 노래처럼 가락처럼 되뇌이곤 했지요"라며 작가의 고향 사랑을 전한다.

안산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거장으로 성장한 신성희 화백. 정이녹 여사는 "신 화백이 남긴 숙제 중 하나가 고향에 그의 이름을 단 집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그의 작품이 고향에서 오래오래 살길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안산과 신 화백은 어떤 모습으로 인연을 이어갈까? 찢고 자른 후 묶어 기여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의 작품처럼 영원히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 안산문화재단, 단원미술제 20주년 기념행사

# ‘단원본색(檀園本色)’으로 시작, ‘아시아호텔아트페어 서울’로 이어져 “선정 작가들의 작품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것”



단원미술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안산문화재단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열린 20주년 아카이브 열기展 ‘단원본색(檀園本色)’을 시작으로, 8월 23일 오픈하는 ‘아시아호텔아트페어 서울 2018(AHAF SEOUL 2018, 이하 아트페어)’로 이어진다. 이는 지난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후속지원 프로그램이다.

역대 대상으로 선정된 작가들의 최근 작품을 전시하는 ‘단원본색’은 그동안 단원미술제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전시 관계자는 “지난

19년 동안 운영해 온 단원미술제의 의미를 환기하는 자리였다.”며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전시투어도 좋은 반응이었고 우수 관람 리뷰를 선정해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 호텔에서 만나는 선정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들

2015년 이후 작가 지원 공모로 바뀐 단원미술제. 그 선정 작가들을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를 지원한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갤러리들이 참여해 진행되는 아트페어는 국내·외 미술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들의 작품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적인 전시공간에서 탈피해 호텔 객실에 전시하도록 기획된 아트페어를 통해 선정 작가들이 다양한 전시형태를 경험하도록 하면서 수상 이후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의 역량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트페어는 그랜드 인터컨티넨



AHAF 참여작품\_김재호(2015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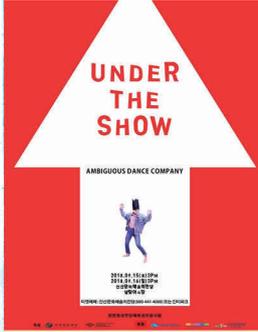
탈 서울 파르나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에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다.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단원미술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모제에서 단연 최고의 상금을 자랑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공모전을 만들기 위해 ‘선정 작가 해외전’ 지원, ‘호텔아트페어’ 개최 등 작가들의 실질적인 창작 의욕을 고무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전시사업부(031-481-0508)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09 Culture Calendar

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	3	4	5	6	7	8														
 <p>&lt;클래식&gt; 조성진 피아노 독주회</p>	10	11	 <p>판화하다 DOBRIM! DO PRINT!</p>	 <p>UNDER THE SHOW</p>	 <p>죽고싶지않아</p>	 <p>제32회 별망성예술제</p> <p>&lt;연극&gt; ASAC몸짓페스티벌 '죽고싶지않아'</p> <p>&lt;연극&gt; 극단 걸판 '분노의 포도'</p> <p>&lt;무용&gt;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Under the Show'</p> <p>제3회 전국 대부해슬길 걷기축제</p>														
1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안산문화예술의 전당</th> <th>클래식</th> </tr> </thead> <tbody> <tr> <td>&lt;연극&gt; ASAC몸짓페스티벌 '죽고싶지않아' 일시 9.7. 20시, 9.8. 1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td> <td>조성진 피아노 독주회 일시 9.9. 1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td> </tr> <tr> <td>&lt;연극&gt; 극단 걸판 '분노의 포도' 일시 9.7. 20시, 9.8. 15시, 19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td> <td>&lt;무용&gt;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Under the Show' 일시 9.15.~9.16. 1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td> </tr> </tbody> </table>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클래식	<연극> ASAC몸짓페스티벌 '죽고싶지않아' 일시 9.7. 20시, 9.8. 1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조성진 피아노 독주회 일시 9.9. 1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연극> 극단 걸판 '분노의 포도' 일시 9.7. 20시, 9.8. 15시, 19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무용>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Under the Show' 일시 9.15.~9.16. 1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원미술관</th> <th>경기도미술관</th> </tr> </thead> <tbody> <tr> <td>안산문화재단 여름기획전 단원미술관 Mix&amp;Match展 &lt;첩첩화중 帖帖畫中&gt; 기간 6.30.~8.28. 10시~19시 장소 단원미술관 1,2관</td> <td>판화하다 - 한국현대판화 60년 기간 7.4. ~ 9.9. 장소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td> </tr> <tr> <td>단원론편트전 &lt;단원절세보첩檀園折世寶帖&gt; 마음으로 그린 산수화 기간 7.10.~2019.6.30. 장소 단원미술관 3관</td> <td>퀀텀 점프 2018 릴레이 4인전 &lt;김재민이 - 사슴은 뭘 먹고 사나요?&gt; 기간 7.4. ~ 7.29. 장소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td> </tr> </tbody> </table>	단원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안산문화재단 여름기획전 단원미술관 Mix&Match展 <첩첩화중 帖帖畫中> 기간 6.30.~8.28. 10시~19시 장소 단원미술관 1,2관	판화하다 - 한국현대판화 60년 기간 7.4. ~ 9.9. 장소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	단원론편트전 <단원절세보첩檀園折世寶帖> 마음으로 그린 산수화 기간 7.10.~2019.6.30. 장소 단원미술관 3관	퀀텀 점프 2018 릴레이 4인전 <김재민이 - 사슴은 뭘 먹고 사나요?> 기간 7.4. ~ 7.29. 장소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지역 행사</th> </tr> </thead> <tbody> <tr> <td>제3회 전국 대부해슬길 걷기축제 일시 9.15.(토) 10:00 ~ 14:00 문의 1899-1720</td> </tr> <tr> <td>제32회 별망성예술제 일시 9.8.(토) ~ 9.9.(일)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무대)</td> </tr> <tr> <td>안산희망마라톤대회 일시 9.16.(일) 9:00~13:00 장소 와스타디움 일원</td> </tr> </tbody> </table>	지역 행사	제3회 전국 대부해슬길 걷기축제 일시 9.15.(토) 10:00 ~ 14:00 문의 1899-1720	제32회 별망성예술제 일시 9.8.(토) ~ 9.9.(일)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무대)	안산희망마라톤대회 일시 9.16.(일) 9:00~13:00 장소 와스타디움 일원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클래식																			
<연극> ASAC몸짓페스티벌 '죽고싶지않아' 일시 9.7. 20시, 9.8. 1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조성진 피아노 독주회 일시 9.9. 1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연극> 극단 걸판 '분노의 포도' 일시 9.7. 20시, 9.8. 15시, 19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무용>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Under the Show' 일시 9.15.~9.16. 1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단원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안산문화재단 여름기획전 단원미술관 Mix&Match展 <첩첩화중 帖帖畫中> 기간 6.30.~8.28. 10시~19시 장소 단원미술관 1,2관	판화하다 - 한국현대판화 60년 기간 7.4. ~ 9.9. 장소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																			
단원론편트전 <단원절세보첩檀園折世寶帖> 마음으로 그린 산수화 기간 7.10.~2019.6.30. 장소 단원미술관 3관	퀀텀 점프 2018 릴레이 4인전 <김재민이 - 사슴은 뭘 먹고 사나요?> 기간 7.4. ~ 7.29. 장소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지역 행사																				
제3회 전국 대부해슬길 걷기축제 일시 9.15.(토) 10:00 ~ 14:00 문의 1899-1720																				
제32회 별망성예술제 일시 9.8.(토) ~ 9.9.(일)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무대)																				
안산희망마라톤대회 일시 9.16.(일) 9:00~13:00 장소 와스타디움 일원																				
 <p>안산희망마라톤대회</p>						 <p>QUANTUM JUMP</p>														



## 청포도가 익어가는 섬, 대부도... 국가대표 와인 '그랑꼬또'의 유혹에 빠지다 은은한 황금빛에 과일향 물씬, 화이트 와인 '청수' 인기... 해산물과 잘 어울려



김지원 대표

바닷길을 가르며 12.7km를 달렸다. 해질 무렵 바닷바람은 시원했고, 산 너머 바다로 떨어지는 서해바다 석양은 붉디 붉었다. 수도권 2천 만 명의 새로운 휴식처로 떠오르고 있는 대부도. 그곳엔,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살아 숨 쉬는 생명이 있으며 또 시시때때로 다양하게 변하는, 석양빛을 꼭 빼닮은 와인 '그랑꼬또(Grand coteau)'가 있다. '대부(大阜, 큰 언덕)'라는 이름 속에 '공(功)들이고 정(情)들이고 맛들인' 국가대표 와인 '그랑꼬또'를 경험했다.

### 안산시 지원으로 시작...

#### 이젠, 시 브랜드 이미지에 큰 기여

대부도 와인의 역사는 최초로 포도나무 캠패럴리 50주를 심었던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97년부터 대부도 농가들이 모여 공동으로 포도즙을 생산하던 중 2000년에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자문과 예산을 지원받아 그린 영농조합(대표 김지원)을 만들었다. '제대로 된 국산 와인을 만들어보자'는 도전이었다. 2001년 처음으로 와인을 생산해 2년 동안 숙성시킨 후 2003년 9월 '그랑꼬또'라는 브랜드로 세상에 내보냈다. 첫 해의 생산량은 2천 병, 국산 와인이 생소하던 시절이라 판매가 쉽지는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전량 판매가 되긴 했다.

김지원 대표는 "당시 국내 와인시장이 크지도 않았고 국산 와인은 더더구나 생소했다."며 "와인에 대해 배울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100명 중 한두 명을 제외하곤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래도 강행했고, 인내와 끈기로 버텨오며 이제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랑꼬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국내외 각종 상을 휩쓸며 인지도를 높였고, 덩달아 매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아시아 와인 콘테스트에서 잇달아 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마침내 2017년에는 금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과실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진가를 인정받았다.

매출도 안정적으로 늘었다. 2015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광명동굴에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최근에는 유명 포털사이트 온라인 술 판매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지원 대표는 "안산시의 지원으로 시작된 그랑꼬또가 이제는 거꾸로 안산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아시아와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와인이자 영어와 독일어로 소개될 만큼 세계적인 교류도 앞장서고 있는, 명실상부하게 한국 와인을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대표 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했다.

### 미네랄 풍부한 토양과 해풍, 천혜의 포도생산지 대부도

'그랑꼬또'의 성공은 양질의 포도와 김 대표의 노력이 융합돼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대부도는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과 비교적 강우량이 적은 뜨거운 열기, 서해안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적당한 습도, 낮과 밤의 큰 일교차 등 포도나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일명 테루아)을 모두 갖춘

천혜의 포도 재배지역이다. 거기에 김지원 대표의 와인에 대한 열정과 '절대 실패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더해져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부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로 농협에서 근무했던 김지원 대표는 1993년에서야 농사를 시작한 늦깎이 농부였다. 포도 농사를 짓던 김 대표가 와인을 공부하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독일로 이탈리아로 프랑스로 미국으로... 전 세계 어디든 와인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녔다. 그렇게 공부했고, 배운 대로 써먹었으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는 김지원 대표. 그는 "와인 품질의 70%는 포도밭에서 결정되고 사람의 정성과 열정 그리고 좋은 기술이 30%"라고 단언하며 "이제 어디 내놔도 절대 기죽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다. 자연 그대로의 정직한 맛과 향으로 세계에서 통하는 와인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와인생산협회 회장인 김 대표는 공인된 '마스터 소믈리에(master sommelier)'이기도 하다. 이는 와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농업, 포도농사, 양조기술, 와인 테스팅 그리고 교육까지 모두 가능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극히 제한된 자격이다. '그랑꼬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인 것이다.

### 요즘 대세는 '화이트'와 '스파클링'... 청포도로 만든 '청수' 인기

현재 '그랑꼬또'는 레드, 화이트, 로제, 아이스 등 9가지 종류가 생산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최근에 개발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청수(靑水)'에 대한 기대가 높다. 청수는 농촌진흥청이 1993년 생식용 품종으로 개발한 청포도 품종으로 추위와 병에 강하며 당도가 20브릭스에 이를 만큼 높아 소



물리에들로부터 화이트 와인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도에서 직접 농사지는 청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있는 김지원 대표는 “은은한 황금빛에 과일향이 물씬 나는 청수는 절제돼 있으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과일의 아로마가 뛰어나고 세련된 청량감을 포현하며 유질감과 미네랄이 동시에 은은하게 느껴진다.”며 “차갑게 드시면 더욱 좋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장인 고재운 경희대 교수는 “과일향이 풍부하며 산뜻하고 가볍다. 깔끔하다. 알코올, 산도, 당도, 향 등의 밸런스도 탁월하다. 생선회, 생선요리, 계찜, 대하 등과 어울린다.”고 평가했다.

김지원 대표는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부터 조합원들로부터 전량 구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약 100톤 규모의 포도를 등급제를 통한 공개수매로 구입할 계획으로, 점차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노동력은 줄이면서 소득은 보장될 수 있는 양조용 재배방법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앞으로 품목 수는 줄이고 가격 경쟁력은 높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외국산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와인 시장을 20년 이내로 외국산 50% 대 국산 50%로 맞추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2세대도 키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안정된 기업체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그린영농조합(032-886-9873)



##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기념 전국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 총 거리 4.5km 소요시간 2시간 예상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선정을 기념하는 ‘전국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이하 ‘해솔길 걷기’)가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안산 대부도에서 진행된다. ‘해솔길 걷기’는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된 행사로 올해가 세 번째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시관광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만 16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참가해야 한다.

행사는 해솔길 6코스와 바다향기수목원길 코스에서 순환형으로 진행되며, 총 거리 4.5km 소요시간은 약 2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결 장소는 경기도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이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경험할 수 있다. 색소폰 연주와 청소년밴드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난타, 오카리나, 하모니카 연주도 들을 수 있으며 ‘대부도를 노래하는’ 가수 서비아 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걷기 행사 진행 중 돌발경품을 증정하며, 무상으로 제공된 엽서를 작성하면 1년 후 받아볼 수 있는 ‘느린우체통’도 마련했다. 대부도 특산품인 포도즙이나 포도를 시식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와 스포츠 이온음료가 간식으로 제공된다. 행사장 주변에는 베품시장이 열릴 계획이다.

행사 참가를 원할 경우 오는 9월 5일(수)까지 홈페이지(<http://www.ansantour.kr>)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대부도관광안내소를 통해 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선착순 2천 명이다. 기념품과 배변표가 지급되며, 폭우 등 악천후가 아닐 경우 비가 내리더라도 정

상으로 진행된다.

대부해솔길은 지난 2016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서 경기·인천지역 1위로 뽑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총 길이 74km, 7개 코스로 구성돼 있는 대부해솔길은 방아머리 선착장을 시작으로 구봉도, 대부남동, 선감도, 탄도항을 거쳐 대송단지까지 이어지며, 각 코스별로 소나무숲길, 염전길, 바닷길, 갈대길, 포도밭길, 시골길 등 서로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8년 행복한 부부' 진행 9월에는 '중년기', 10월에는 '노년기' 대상 프로그램 마련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2018년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부부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건강하고 안정적인 부부관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28일에는 다문화 부부 15쌍과 자녀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오는 9월과 10월에는 각각 중년기와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문화 부부 대상의 프로그램은 '둘이 하나 되는 슬기로운 부부생활'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부부마음이 통하는 행복한 부부 되기', '사랑가득 도시락 만들기',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지혜로운 부모 되기', '부부향기 테라피-천연비누 & 핸드로션 만들기' 등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불편한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영상자료를 마련해 이해를 도왔으며,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은 아이돌봄 활동가와 함께 종이접기, 풍선놀이, 젠가, 보드게임, 영화감상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 담당자는 "교육 후에도 천연제품 만들기 등의 활동을 했는데 부부들이 더욱 친밀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부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 듯해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다문화 부부들은 "올바른 대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배우자에 대한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특히 다른 부부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 동질감,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만족해 했다.



오는 9월과 10월에는 중년기와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교육, 부부웃음치료, 부부나들이' 프로그램이 열리며, 참여를 원할 경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 홈페이지 - <http://ansan.familynet.or.kr>)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문화 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8월 29일 '안산역'에 정차해요



'예술열차 안산선'이 오는 8월 29일 '안산역'에 정차한다. 이번 예술열차는 '문화로 스킨다'라는 주제로 안산역의 특수성을 반영, 출퇴근 노동자들이 지나가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몸짓 공연들로 구성됐다.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몸짓으로 표현되는 무용 공연을 중심으로 안산역 노동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풍물마당 '터주'의 사자놀이를 시작으로 '온앤오프(on&off)' 무용단의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앤앤딩'의 '버스킹 무용', 조민진 무용단의 '삼고무', '로우 패밀리'의 '비보이 샵돌이', 마지막으로 '이하림 트리오'의 '거리 재즈'를 선보인다. '예술열차 안산선'은 지난 6월 27일, 반월역에서 힘차게 출발해 초지역 정차 이후 3번째로 8월 29일 수요일 안산역에 정차한다. 안산역을 떠난 후에는 상록수역(9월28일-길에서 놀자), 중앙역(10월31일-청년#예술로 지역을 기반으로)에서 각각 정차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초지역 예술열차는 안산과 부천을 잇는 서해선(안산 원시-부천 소사) 개통에 맞춰 스마트허브 내 노동자 및 거주자에게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사업인 '예술열차 안산선'과 함께 '2018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이 협력해 '청(淸)자유구역 노동 더하기'라는 주제로 '노동+변화', '노동+이야기', '노동+열정'의 3가지 테마로 열렸다.

'예술열차 안산선'은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코레일과 안산시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안산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 지속력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25) /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청탁금지법 Q&A

#### 사례1 실행되지 않은 부정청탁

**Q** 민간인A가 공직자B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청탁을 했지만 공직자B가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A** 법 위반임.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 **해설**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에 상관없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됨.

**<부정청탁 흐름도 및 처벌>**



#### 사례2 배우자의 경조사비 수수금지

**Q** 시청 직원 A주무관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20만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법 위반인가?

**A** 법 위반이 아님.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법 제8조제4항) 배우자가 소속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은 제재사항이 아님.

**<관련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들의 배우자는 공직자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됨.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4차 산업혁명 미래인재 육성 박차 3D프린터와 가상현실(VR)에 대한 이론 및 실기 교육 진행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대덕청소년과학관(이하 대덕과학관)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덕과학관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2018년 과학·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또한, 2018년 메이커 교육 '미래제작소'를 운영해 미래·창의 인재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이커 교육은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 대덕과학관은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과학·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그린시티 안산! 만들기'라는 주제로 시화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전기 공급자와 생산자들에게 전기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전기 공급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강연이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이를 동안 진행된 '그린시티 챌린지'

는 로봇을 활용해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 하는 청정도시를 담아내 큰 호응을 얻었다.

대덕과학관은 남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터와 가상현실(VR) 기술 체험교육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메이커(Maker,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이나 혹은 단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관련한 실습도 진행한다. 대덕과학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로봇, 3D프린터, 가상현실 등을 가깝게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혁신 기술형 인재육성 교육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교육의 질적 수준이 뛰어나며, 청소년 수련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운영 모델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청소년수련관 내 대덕과학관은 첨단 기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미래·창의·융합 인재 육성의 중심"이라며 "안산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내·외부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긴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031-475-1981)

## 상록구청,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진로 탐구' 지원 어린이들 가상현실 체험으로 독도와 뉴욕 다녀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상현실(VR) 등 첨단미디어 체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진로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체험교실이 열렸다.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첨단미디어테크랩'(경기대학교 산하기관)의 체험 프로그램을 유치·활용, 지난 8월 16일 상록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교실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대상 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아동 54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재와 같은 체험을 하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인 가상현실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가상현실을 통해 독도와 미국 뉴욕을 다녀오기도 했다. 체험을 위해서는 머리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HMD(Head Mounted Display)를 장착해야 한다.

체험 여행에 대해 행사 관계자는 "뉴욕 여행길에 오른 아이들은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도착하게 된다. 지어진 지 87년이 된 빌딩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 외나무다리를 건너 옆 건물로 넘어갈 때는 현실보다 더 실재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 아이, 주저앉는 아이,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는 아이 등등 첨단미디어를 접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직접 가상세계를 보여준 경기대학교 첨단미디어테크랩 권중수 교수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해봄으로써 다양한 자기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대학입시만이 능사가 아닌 다양한 경로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대가 될 텐데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를 넘어서는, IT나 과학기술 산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미래를 이끄는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 혁명으로 영국의 섬유공업이 산업화하고, 19세기와 20세기 초 전기에너지 기반의 2차 산업혁명이 공장 컨베이어 벨트로 대변되는 대량생산 체제를 이뤘다면,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지식정보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사람, 사물, 공간이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시대로, 이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보고 있다.

이태석 상록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안산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정보 격차를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IT관련 프로그램을 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상록구청 행정지원과(031-481-5301)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같이 목공하면 어색할 틈도 없어요” 금세 친해지는 사동 아빠 모임 ‘금사빠’

토요일 밤, 상록구 사동 목공방에 모인 아빠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종이에 작품 설계도를 그리고, 목공 재단기로 나무를 자르며, 조각을 맞춰 모양을 만든 후 사포질을 한다. 각자 작품을 집중해서 만든다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도 안 풀리면 모두 모여서 해결방법을 찾아본다. 그렇게 두세 시간동안 함께 뭔가를 만들다보면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웃을 일이 생긴다. ‘금사빠’(금세 친해지는 사동 아빠 모임, 대표 김형우) 회원들의 네 번째 모임이 있던 날, 한 자리에 모인 동네 아빠들은 서로서로 힘을 모아 우드스피커를 만들었다.

‘금사빠’는 매년 사동 마을축제 때마다 자원봉사를 하던 동네 아빠들이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꾸준히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모여 시작했다. 지난 6월부터 동네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고, 어느새 입소문이 나면서 10여 명의 회원들이 꾸준히 참석하는 든든한 동아리로 성장하고 있다.

‘금사빠’에서 아빠들이 함께 모여 주로 하는 일은 목공과 배드민턴. 매주 첫째·셋째 토요일 저녁 8시에는 목공수업을 하고,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친다. 목공이 ‘필수’라면 배드민턴은 ‘선택’이다.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빠들이 관심 있는 취미 활동을 매개로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니, 동아리 이름처럼 어색할 틈도 없이 서로 금세 친해졌다.

“어쩌다 사다리타기로 뽐냈다”는 김형우 대표는 “주말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빈둥거리게 되는데 목공을 배우는 것도 좋고, 동네에서 술 한 잔씩 기울이며 몰랐던 분들을 알아가는 것도 좋다.”며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가거나 바다낚시도 하는 등 재미있



는 활동을 계획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무로 활동하는 김혁수 씨도 “도시에서 동네 아빠들이 모이는 게 쉽지 않은데, 함께 모임을 갖다보니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정말 즐겁다.”며 “조그마한 시골 동네들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느껴지도록 더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늦은 밤까지 아빠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우드스피커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자 나무의 공명을 탄 따뜻한 울림이 선명하게 흘렀다. 각자 다른 크기의 나무 조각들이 스피커의 울림통 역할을 하듯, 개성 넘치는 아빠들의 웃음소리가 동네에 작은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 문의 : 금사빠(금세 친해지는 사동 아빠 모임) 010-9028-9252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눈부신 지금 이 순간을 담는 ‘홍차부부 사진가게’ 마을사진가 홍경표 · 차해란 부부 이야기

“사진 찍다가 울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를 돌아보고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처음이었다고’... 사진은 정말 특별한 거 같아요.”

‘홍차부부 사진가게’는 홍경표 · 차해란 부부(이하 홍차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진관이다. 서울 충무로에서 이른바 ‘대박이 났던’ 갤러리와 스튜디오를 접은 후 부부가 과감히 선택한 곳은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소박한 공간.

잘나가는 포토그래퍼로 일하며 건축 · 광고사진을 찍던 홍경표 작가는 이곳에서 여권사진과 가족사진, 반려동물을 찍는다. “전보다 수입은 훨씬 줄었지만, 삶의 질은 어느 때보다 풍족해졌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사진 한 장에 기뻐하는 사람들 표정에 카메라 드는 일이 행복해졌다.”는 그다.

‘삶의 탄생부터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합니다’라는 사진가게의 모토만큼이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생후 100일 된 아기와 함께 온 부부, 여권 사진 찍으려고 서울에서 찾아온 대학생,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주와 영정사진 찍으러 오신 할머니. 부부의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은 굳어 있던 얼굴을 풀고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게 웃었다. 딸 결혼식 사진에서 조차 인상을 쓰던 아버지도 환하게 웃었고,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표정도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 찍을 때 대화를 많이 해요.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키는 데 좋거든요. 보통 아버님들이 오셔서 빨리 찍고 가자고 야단이지만 촬영 마지막쯤 되면 ‘오늘 너무 재미있다고’ ‘조금만 더 찍어달라’고 하시죠.” 홍 작가의 말이다.

충무로를 떠나 안산으로 오면서 “고정관념이 많이 깨졌다”는 홍 작가에게 좋은 사진이란 ‘누가 봐도 미소 짓게 되는’ 사진이자 ‘지금 이 순간을 남기는’ 사진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거울 볼 일도 점점 줄어든 어른들에게 ‘오늘 남기는 당신 얼굴이 가장 예뻐요’라는 가게의 또 다른 모토는 자신감을 얻게 했고, 리모컨으로 자신을 직접 찍어 볼 수 있는 자화상 시리즈는 10여 분 동안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다. “뭔가 제 사진 한 장으로 치유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면 좋은 거 같아요.” 작업실 벽면에 걸린 선한 미소를 머금은 인물사진들은 홍차부부의 말을 대신 전해주고 있었다.

스스로 ‘마을사진가’라고 소개하는 홍차부부는 사진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



고 있다. 영정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장수사진을 찍어드리기도 하고, 그룹홈에 사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해 가족사진을 합성해 선물해주기도 했다. 또, 안산의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진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대부도의 어르신들, 일동의 청소년, 부곡동 어린이들의 반짝거리는 눈망울을 보며 홍 작가는 가르치는 재미를 알게 됐다고 했다.

이밖에도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책자도 직접 만들고 있다. 반월동의 결혼사진집, 세월호 엄마들의 압화 전시집 등 한 사람 한 사람의 추억과 이야기들이 정성스럽게 책자에 담겼다. “삶은 순간순간”이라고 말하는 홍차부부. “저희한테 50일, 100일 사진 찍은 한 아기가 자라서 증명사진을 찍고, 성인이 되어 주민등록증 사진도 찍고, 또 애인을 만나 웨딩사진도 찍고, 세월이 지나 아이들과 가족사진 찍는 모습을 지켜보며 건강하게 오래도록 셔터를 누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며 꿈을 이야기한다.

◇ 문의 : 홍차부부사진가게(031-408-0827)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지구를 살리는 쓰레기 분리배출법-④



# "돌고 도는 물, 아껴 쓰고 덜 버리며 지구공동체를 지켜요"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낙동강 등 상수원 7곳에서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나는 등 환경오염으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수원지의 물은 각 지자체 정수장에서 걸러진 후 상수도를 통해 시민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공급된다. 반면 가정에서 사용한 물은 하수관을 통해 강과 바다로 흘러간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수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 폐수는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며 돌고 돌아 인간의 삶을 위협한다.

#### 안산시 생활하수는 어떻게 처리되나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더럽혀진 물을 깨끗이 정화해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1일 53만4천 톤의 하수 처리가 가능한 안산하수처리장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공장 폐수 20만 톤과 대부도를 포함한 안산시민의 생활하수를 처리한다. 연평균 1일 40만1,400톤을 처리하며, 톤당 421.8원의 비용이 든다.

각 가정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는 58개 중계 펌프장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진다. 유입된 하수는 유입장-최초 침전지-생물 반응조-최종 침전지-여과지-소독 시설-방류 펌프장을 거쳐 방류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농축조-소화조-탈수기-소각 시설을 거쳐 처리된다.

유입장에서는 후속 공정 시설물의 기계장치 파손 및 마모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닐, 나무토막, 모래, 토사 등 부유물질을 제거하며, 유입장을 지나온 하수는 최초 침전지에서 2~3시간 정도 체류시켜 비교적 가벼운 부유물질을 제거한다. 이후 물은 생물 반응조로, 침전된 찌꺼기는 슬러지 처리 공정으로 이송한다.

생물 반응조에서는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고 질소·인 등 미세한 오염물질까지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을 담당한다.

최종 침전지에서는 하수를 약 3~5시간 정도 침전시켜 맑은 물과 슬러지를 분리, 물은 정수기 필터 개념인 여과지로 보내며, 이곳에서는 호기성 미생물을 통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상당하는 유기물의 양)와 SS(물속에 존재하는 부유물질의 농도)를 제거해 보다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한다. 이어 소독 시설에서는 대장균 등 각 세균을 살균한 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관제센터



안산하수처리장 전경

방류 펌프장의 펌프를 이용, 2m 관로를 통해 서해로 방류한다. 하수 슬러지는 농축조와 소화조를 거쳐 감량시킨 후 탈수 작업으로 부피와 무게를 줄여 소각 시설로 보내며, 탈수한 슬러지는 고온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는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한다.

#### “소중한 물, 아껴 쓰고 덜 버려요”

간장, 된장, 맥주, 식용유 한 잔(50ml)을 버리면 수질 회복을 위해 각 2천75ℓ, 9천250ℓ, 5천363ℓ, 3천375ℓ의 물이 필요하다. 이를 막기 위해 기름기 묻은 그릇은 휴지로 닦아내고, 주방 세제는 되도록 적게 사용해야 하며, 화장실 변기 물탱크에 물을 채운 페트병을 넣어 두면 1년에 약 4천500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세탁횟수를 줄이고, 양치할 때는 컵을 사용하며, 설거지도 물을 받아 사용하면 약 10배 정도 절수가 가능하다.

안산하수처리장 김관식 과장은 “생활하수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관로가 막히는 게 가장 문제다. 식용유나 공장 폐수에 섞여 배출되는 유분은 뭉치면서 여과지의 필터를 막아 고압 세척기로 닦아내야 한다.”며 “물을 정화하기 이전에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 “나와 이웃, 지구촌 공동체 살리기에 동참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과 그로 인한 과도한 소비는 환경을 파괴하며 지구온난화,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해도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물, 에너지, 자원을 아껴 쓰는 습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름철 냉방온도는 26도 이상, 겨울철 난방온도는 20도 이하로 유지하는 등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극곰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뒤적이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화하지 못해 고래가 사망하며,

바다거북은 플라스틱 빨대가 콧구멍에 박혀 고통스러워한다. 최근에는 파도와 바람 등에 잘게 부서진 크기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큰 문제로 대두됐다. 이는 결국 먹이사슬의 마지막 단계인 인간의 건강도 위협한다.

이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면봉이나, 빨대 등 10여 종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도 지난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기로 했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커피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모바일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 활용

환경부는 지난 7월,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모바일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출시했다. 이 앱에는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행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품목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분리배출 할 때 헛갈리는 사례 문답풀이 등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으며, 분리배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Q&A) 게시판도 마련했다.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의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문의 : 안산하수처리장 (031-491-9616)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BRAVO ANSAN**  
안산시 지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은 무료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메일 \_bravo@iansan.net  
• 전화 \_ 031-481-2042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 성포동 행정복지센터에 피어난 금잔화 폭염 속 생명의 경이로움... 꽃말은 '겸손 · 인내'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내 자치센터 입구에 금잔화가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로 관상용으로 키우는 금잔화가 야생에서,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피어나 더욱 반갑다는 반

응이다.

성포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S 씨는 "입구에 버섯이 피어 자칫 밟힐까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 어쩔 저리 예쁘고 건강하게 피었을까하는 놀라움이 더 앞선다."

며 반겼다. 시민들의 반응도 재미있다. 성포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M 씨는 "피기 전에 몰랐었던 잡초가 언제 밟힐까 노심초사했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던 꽃이 오늘에야 만개하니 심금을 울린다."며 "무심코 지나쳤던 금잔화가 꽃을 피우니 마치 아기 꽃 엄마 꽃이 모여 합창을 하는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이어 "어두운 땅속에서 혹독한 추위와 불벌터위를 이겨내고 핀 금잔화가 서로서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웃음 잃지 말라고 미소 짓는 것 같다."며 감탄했다.

송순복 동장은 "겸손과 인내라는 꽃말을 가진 금잔화가 우리동에 피워 반갑고 기특하다. 밟히지 않고 오래오래 꽃 피울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진한 노란색의 꽃이 예쁜 금잔화는 금송화로도 불리며, 유럽 원산의 한해살이풀로 전국 각지에서 관상용으로 주로 기르는 꽃이다.

### 안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찬으로 이웃사랑 실천



안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반찬 나누기'를 추진했다. 올해 12번째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을 위로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총 26명의 위원들이 2개 조로 나눠 매월 2회 장보기와 조리, 배달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도 위원 10여 명이 참가해 오전 10시부터 장을 보고 반찬통에 담는 등 구슬땀을 흘렸으며, 정성을 담아 만든 미늘종무침, 멸치볶음, 우영조림 등을 지역 내 독거노인 20가구에 전달했다.

김홍락 민간위원장은 "정성어린 손길로 전달한 밑반찬이 외롭고 힘든 마음에 따뜻함으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안산동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본오1동 & 주민자치위원회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 운영



본오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본오1동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 개설·운영을 위해 담원 경로당과 본오 경로당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 프로그램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담원 경로당과 본오 경로당 두 곳이 선정됐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고 무리한 일상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은 8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엔 요가, 목요일엔 음악교실이 진행된다. 오는 10월 30일까지 총 24회 진행할 예정이다.

### 월피동 새마을회 경로당 어르신에게 추어탕 대접



월피동 새마을회는 지난 10일과 13일 부루지 경로당과 월광 경로당에서 경로당 어르신 50여 명을 모시고 추어탕 봉사를 가졌다. 월피동 새마을회는 새마을부녀회 오양순 회원(오양순 추어탕 운영)의 후원으로 매달 지역 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추어탕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세영 회장은 "작은 나눔, 따뜻한 동행으로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내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철 월피동장은 "사업장 운영만으로도 바쁘신데 꾸준히 추어탕 후원을 해주는 오양순 회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사이동, '항가울 갤러리'에서 전시회 "연필로 그린 김연아, 김고은 보러 오세요"

사이동 행정복지센터는 8월 6일부터 31일까지 동 주민자치센터 3층 항가울 갤러리에서 연필 인물화반 그룹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사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인 최윤희 씨 외 8명이 김연아, 김고은 등 유명인들을 연

필로 세밀하게 그린 것으로, 총 21점을 선택했다.

이기임 동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피해 더위도 식히고 사이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도 관람할 겸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 고잔동, 꽃향기 가득한 랜드마크 3종 세트 원고잔공원에 하트 화단, 단원고 벽면에 우드 벽화

고잔동은 꽃향기가 가득한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3종을 조성했다.

첫 번째 랜드마크는 원고잔공원 인근에 계절 꽃이 식재된 기차 화분을 설치하고, 하트 화단을 조성해 마련했다.

두 번째는 단원중학교와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청소년들의 등굣길을 중심으로 2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 주민이 직접 참여해 과거에 대한 기억과 새로운 희망을 함께 담은 '학교가는 길'이라는 우드 벽화를 그렸다. 벽화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과 우정을 주제로 담았다. 봄에는 '벚꽃이 피던 어느 날 네가 그림다' 여름에는 사춘기 아이들의 진로 고민을 담아 '너의 일상과 고민이 궁금하다' 가을에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추억

을 남기다' 겨울에는 졸업식의 이미지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다' 등 다양한 그림과 이야기가 담겨있다.

세 번째 랜드마크는 '소생길 마을 정원'이다. 2017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곳은 주민들이 '일촌가드너 교육' '교마정원사 교육' 등을 통해 정원사로서 계절별 꽃을 심고 가꾸어준 덕에 마을 주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마을 정원이다.

황희숙 주민자치위원장은 "고잔동 초입에 하트 화단을 조성해 방문하는 외부인과 주민을 환영하고, 우드 벽화를 보며 고잔동의 희망인 학생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소생길 마을 정원에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좋다."며 "정미 넘치는 문화마을 고잔동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활동소감을 밝혔다.

### 와동 어울림(林) 쉼터 4계절 족욕 가능... 폭염 속 인기 만점



와동 행정복지센터 따복공동체 공모 참여 사업인 '와동 어울림(林) 쉼터(이하 어울림 쉼터)' 공간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한 어울림 쉼터는 여름에는 산에서 흘러내려온 지하수를 활용하여 냉수 족욕을 할 수 있고 봄, 가을, 겨울에는 건식 족욕기로 발마사지를 할 수 있는 주민 건강 쉼터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쉼터를 찾은 주민이 한 달 동안 900명을 넘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최석원 동장은 "어울림 쉼터는 '한 지붕아래 따뜻한 와동'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 활동들이 계속 된다면 와동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원곡동 주민자치센터 '사랑의 미용실' 운영



원곡동 주민자치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 무료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2층 복지상담실 앞에서 진행된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번호표를 가지고 대기해야 할 만큼 많은 어르신이 찾고 있다. 어르신들은 "깔끔해진 모습을 보면 기분도 좋고 잠시 더위도 잊게 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원곡동에서 꾸준히 이·미용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고순이 씨는 "어르신들이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곡동 '사랑의 미용실'은 방문하는 어르신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약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방문하고 있다.

### 초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한 밥상' 특화사업 추진



초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월 31일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관내 청소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밥상'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그린빌 16단지 관리사무소는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점심 무료급식을 지원 했으며, 초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배식 봉사 및 소양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은 우호덕 동장이 '나의 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8월 7일과 9일에는 협의체 위원 이 풍선아트 체험 교육과 진로 적성검사를 진행했다. 우호덕 동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초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 우리는 자랑스러운 안산시 학생 명예기자다!



**이예나**  
(석수중학교)

## 안산어촌민속박물관 –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장이 가득

어촌민속박물관은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해 있다. 어촌민속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것을 보고 체험 할 수 있고 총 3개의 전시실이 있다.



제 1전시실에서는 갯벌 생태계와 서식 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갯벌이 생기는 이유 또 갯벌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집을 볼 수 있다. 다음 제 2전시실은 갯바탕과 어로 활동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전시실에서는 갯벌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들을 실제로 볼 수 있으며, 옛날에 갯벌에서 어떻게 먹이를 채집 했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 제 3전시실에서는 역사와 생활 문화라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풍도해전도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전시 되어 있어서 생동감 있게 관람 할 수 있다. 어촌민속박물관에는 전

시실 외에도 3D입체 영상실, 도서자료실, 어린이 체험실과 같은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와 학생들이 방문하기에 적합하다.

-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7 안산어촌민속전시관
- ◆ 가격: 어른 2천원 / 어른(단체) 1천5백원 / 청소년, 군인 : 1천5백원 / 청소년 군인(단체) 1천원 // 어린이 : 1천원 / 어린이(단체) : 7백원
- ◆ 웹사이트: <http://www.ansanuc.net/institution/folk.aspx>

**정하음**  
(해양중학교)

## 해양중 2학년의 날 웃음꽃 활짝 – 패션쇼, 장기자랑으로 시험 스트레스 날려

지난 7월 18일 수요일 안산 해양중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참가한 ‘학년의 날’ 행사가 열렸다. ‘학년의 날’은 시험으로 지친 아이들이 하루 동안 수업 없이 신나게 즐기는 날이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사회자부터 프로그램까지 모두 아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학년의 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종일 진행됐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패션쇼 준비와 리허설, 4교시는 패션쇼, 5교시는 레크레이션, 6교시는 장기자랑 순서로 진행됐다. 4교시에 진행된 패션쇼에서는 학급 아이들 모두가 참여해 패션쇼 컨셉을 정했으며 무대 의상, 음향, 조명도 학생들이 직접 역할을 나눠 참여했다. 패션쇼에 열심히 참여한 학급 중 순위를 매겨 1위부터 3위까지 상금을 수여하고 모든 학급에 간식을 지원했다. 3위는 프로듀스

101을 패러디를 한 2학년 6반이, 2위는 디즈니, 파워레인저 등을 코스프레한 1반이, 1위는 웨딩을 컨셉으로 한 4반이 차지했다. 5교시에 진행된 레크레이션에는 학급 학생들 중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경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는 림보, 댄스 배틀, 소음대결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댄스 배틀 경기에는 반 학생들 모두 나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6교시에 진행되었던 장기자랑에는 5팀의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시간이었다. 장기자랑은 미리 학년부장 선생님께 신청을 한 아이들이 무대에 올랐다. 장기자랑에 참여한 2학년 1반 이현서 학생은 “아이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이 호응도 잘해주고 재미있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을 듣고 뿌듯하다” 라고 말했다. 2학년 6반 변예은 학생은 “학년의 날을 통해 아직 조금 어



색했던 반 아이들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다” 말했다. 학년의 날을 통하여 해양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시험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풀고 반 아이들과 단합하고 화목해지는 계기가 됐다. 한편 해양중학교는 여름방학 전 각 학년마다 ‘학년의 날’을 진행해 7월 19일은 1학년의 날, 7월 20일은 3학년의 날이 펼쳐졌다.

**최혜원**  
(원일중학교)

## 안산 속에 있는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서

지난 8월 9일 우리 학생 명예기자들은 안산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들을 찾고 경험하러 떠났다. 이미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장소도 있는 반면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장소도 있었다. 학생 명예기자들은 각각 장소들을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총 4군데를 다녔다. 첫 번째로 안산 시화나래 조력문화관 달전망대에 갔다. 달전망대 옆에 있는 전시관에 가서 전시작품을 보고 달전망대에서 안산에 멋진 풍경을 만끽했다. 특히, 전망대에 설치된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관람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새롭고 조금은 떨리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 줬다. 두 번째로는 안산 그랑꼬뜨 와인너리에 갔다. 청소년들에게 와인이란 조금은 색달랐지만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재료로 또한 어떤 와인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학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와인을 직접 맛보진 못했지만 와인에 쓰이는 포도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 번째로는 대부광산 퇴적암층을 가봤는데 아직은 개발

이 덜 된 상태라 조금은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불편함을 잊게 해주는 멋진 풍경과 퇴적암 층들이 우리들의 마음으로 다가왔다. 네 번째로는 안산어촌민속박물관에 가서 안산에 사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보고 들으며 안산의 역사 속으로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 명예기자 정하음 학생은 “달전망대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높은 곳에서 한눈에 조력발전소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멋진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고, 한승호 학생은 “대부도라는 지역을 가 볼 기회도 없었고 여러모로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대부도를 경험해보니 참 좋았고 명예기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관람해보니 더 생생하고 보람찬 시간이 됐던 것 같다.” 라고 말했다.

## 의원연구단체 ‘안산 어린이와 부모 연구모임’ 고양시와 서울시 어린이 박물관 등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안산 어린이와 부모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을 견학한 후 시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산 어린이와 부모 연구모임’(김동수, 이기환, 이경애, 현옥순, 김태희 시의원)은 지난 8월 1일 폭염기간에도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서울시 상상나라와 강동어린이회관 등 3곳을 현장 방문하고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어린이박물관은 1899년 세계 최초로 미국 뉴욕에 브룩클린 어린이 박물관(Brooklyn Children's Museum)이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서울 송파구에 세워진 삼성어린

이 박물관이 처음이다. 현재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호기심,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대표적인 체험활동 복합문화놀이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2016년 개관)은 지구의 미래와 자연생태, 생활안전과 도시환경, 예술과 문화 등의 테마로 15개 공간에 10개의 체험전시실과 136개의 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방문객은 대부분 아이를 동반한 25~44세 부모로 월 평균 23,700여명이며, 총 누적방문객이 61만 여명에 달한다.

‘서울시 상상나라’(2013년 개관)는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 박물관으로 일일 방문 아이들과 부모들이 1500~3000여명으로 연간 53만여 명에 달한다. 상설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요리교실과 공연 등 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의 ‘강동어린이회관’(2007년 개관)은 최근 영유아 전용 놀이공간인 동동놀이 체험관을 리모델링하였고, 어린이와 가족 대축제를 연회 개최하고, 부모와 보육 관계자 및 장애아이 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고양 어린이 박물관 안상용 관장과 경영지원팀 및 학예운영팀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 박물관 건립 과정, 지역사회와 어린이에게 주는 기대효과, 연간 운영예산과 인원 현황,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과 전시사업, 공연과 축제사업, 아이들의 안전문제, 이용자의 재방문을 향상방안,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은 지난 7월 26일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산이 어린이 친화적인 도시인가?’에 대한 주제로 어린이, 부모, 보육과 아동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시회 앞두고 간담회 개최 관련 현안 논의 ... 내실 있는 심의 다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8월 7일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해 제250회 임시회 관련 안건을 협의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가 8월 7일 의회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안산시 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주택과, 자원순환과 등 소관 부서 5곳 관계자들과 임시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제250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 집행부와 사전 협의 차원에서 개최됐다.

시 측은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의회보고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도시공사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 계획(안)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회의 안건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집행부에 행정가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하는 등 자료 검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은 “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제250회 임시회에는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이 다수 제출된 만큼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협력해 내실 있는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정 질문 등이 예정돼 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도 오는 23일 임시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안산시의회 ‘열린 의회교실’ 참여 열기 뜨겁다... 의회에 대한 이해 넓힐 기회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운영 중인 ‘열린 의회교실’에 대한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월 10일에도 2곳의 기관과 3곳 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토닥토닥 응원단 일행 20여명이 의회를 찾아 ‘알기쉬운 지방의회’ 교육과 퀴즈로 알아보는 ‘도전, 골든벨’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사와 의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지역 학생들과 가족으로 구성된 응원단은 평소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의회에서도 김동규 의장과 김정택 부의장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다. 응원단 학생들은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시의원들에게 고마움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응원품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오후에는 대부초등학교 및 대부중학교, 대부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일행이 의회를 방문해 역시 열린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이날 마지막으로 의회를 찾은 수암지역아동센터 학생 일행 10여 명도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장과 열린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그라미 마음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의회를 방문했다. 김동규 의장은 “열린 의회교실이 의회 활동사항을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 의회교실 프로그램에는 앞서 지난 9일에도 지역 4개 초·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의회에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아기사진(또는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이름 · 생년월일 · 성별, 부모이름, 주소, 연락처, 태명, 태몽, 사연(탄생이야기,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5만원)를 드립니다. (대상 :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생후 ~ 24개월즈음 아이를 둔 출산 가정) ※ 나비잠 :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을 뜻하는 순우리말



나라는 사실 결혼 전에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아이예요. 처음엔 너무 무섭고 겁이 났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온 천사라고 생각하고 예쁘게 키우고 있답니다.

아기이름: 신나라 출생년월: 2017. 3월 태명: 신나라 태몽: 큰 나무가 거꾸로 심어져 있었고 거꾸로 심어진 나무뿌리에서 대풍이 많이 열려있었는데 그 중 하나를 제가 따서 먹었어요

태명이랑 이름이 같아서 자기 이름을 빨리 알게 된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신나라~” 하고 부르면 확실히 돌아봐요. ㅎㅎ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많이 되고, ‘아기에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어쩌지?’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라를 직접 마주한 순간 그런 걱정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천사 같은 아이가 저에게 와줘서 정말 다행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먹순’이고 엄마 아빠 둘이서만 먹는 건 절대 못 봐서 아빠 입에 들어간 걸 억지로 손을 넣어서 빼내는 ‘똥똥’지만, 배가 볼록 나와서 똥똥똥똥 걷는 모습도 너무 귀엽습니다. 옛날엔 아이를 싫어했지만 나라가 태어나고부터 세상 모든 아이들이 예쁘고 한 번 더 보게 되네요. 나라가 앞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나라의 엄마 아빠가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나라야 엄마 아빠가 사랑 듬뿍 듬뿍 줄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항상 사랑해 ♡

아기이름: 조유이 출생년월: 2017. 5월

태명: 오월이

태몽: 산딸기를 바구니에 담은 꿈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 그리고 오랜 기다림...

우리부부는 참 어렵게도 아기를 가졌답니다.

한약도 먹고, 병원도 다녀보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저희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관아기를 준비하는 사이, 정말 기적처럼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아기여서일까... 그렇게 힘들다던 육아가 저에게는 사실 마냥 기쁨으로만 다가왔었습니다.

태어나 첫 울음을 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감동이 아닌 적이 없었고, 아기의 몸짓 하나하나에도 너무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이야. 엄마 아빠에게 선물처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유이가 우리집에 온 후로 엄마 아빠는 많이 행복



해졌어. 오늘이 너무 보람되고, 내일이 너무 기다려진 단다.

이제 오물오물 귀여운 입으로 말도 하고, 노래도 하게 되겠지?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기대가 돼. 엄마 아빠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유이의 앞날을 응원해줄게!! 우리 지금처럼만 행복하자.

사랑해. 엄마의 아기천사야♡

아기이름: 고을 출생년월: 2018. 6월

태명: 여음이 태몽: 왕뱀(핑크)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커서 정말 낳기 너무 힘들었어요. ㅠㅜㅜ 결국 진통 6시간 만에 순산해서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답니다. 100일의 기적을 부탁해 여음이~ 뱃속에서 뇌실이 크다고, 태어나서 뇌실크기도 검사받았는데 다행이도 정상이라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출산은 가정의 행복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끝!



독자 투고

무더운 여름, 수고하는 손길에 감사



더워도 너무나 더운 올해 여름이다. 40도를 육박하는 더위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엄두가 나질 않을 정도다. 얼마 전 어쩔 수 없이 장을 보러 땀병에 나갔는데, 짹짹 작동하는 햇볕 아래서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는 분들을 보았다. 옆에 트럭을 세워둔 것을 보니 몇 군데를 이동하며 여러 곳에 설치할 예정인 거 같았다. 서너 명의 남자들이 비오듯 땀을 흘리며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순간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다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이 더위에 누군가는 땀 흘려 수고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후 거리를 지날 때 보니 생각보다 많은 곳에 펼쳐져 있는 그늘막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여기저기 설치된 분수놀이 쉼터며 생수 무료 제공,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안전요원 배치까지... 세심한 배려들이 느껴졌다. 지독하게 무더운 여름을 조금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수고하고 계신 안산시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해본다.

• 최지은(단원구 광덕서로)



독자 투고

## 안산시의 인도주의적 결단, 적극 지지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016년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사는 곳이 바로 우리 안산시다. 자그마치 8만3천여 명.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고 있는 안산시는 어쩌면 그들에게 ‘희망의 땅’이나 ‘약속의 땅’이지 않을까.

이번에 안산시가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8만3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아동 662명에게 매월 보육료 22만 원을 지급한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시민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우리 산업을 지탱해 주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적으로도 안산시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소기업이 많은 안산시에 사는 외국인 가정은 대부분 맞벌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보육시설에 맡겨진다. 위탁비용은 나이에 따라 30~40만 원 정도라는데, 아이가 둘만 돼도 큰 부담일 것이다.

한 달에 버는 수입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 집세를 포함해 여러 세금과 공과금, 의료비, 숙

식비에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까지... 우리시 결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왜 그들을 돕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은 거의 가족 단위 보단 개인으로 있다. 그런데 개인으로만 있으면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다. 가족으로 있을 때 필수 불가결한 돈이 들어가고, 따라서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이 한국에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번 돈도 한국에서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 특성상 인프라가 남는 시점이고, 그저 기본교육 지원이니 큰 투자 없이도 사용하기 쉽다. 회사 기숙사에서 살면서 번 돈을 모두 본국으로 보내버리는 체류자가 대부분인 반면, 가족이 있으면 그 돈이 다시 우리나라 시장에 돌게 되니 순기능이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선진 시민으로서 넓은 마음과 자세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안산시의 의미 있는 이번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 김진순(단원구 선부광장로)



경찰 기고

## ‘깨진 유리창 이론이 주는 교훈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이 있다.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길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혀져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일상생활의 경미한 범죄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범죄학자 조지 켈링(George L.Kelling)과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이 1982년에 이론화했다. 1969년 미 스탠퍼드 대학의 짐 바르도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지역 내 치안 여건이 좋은 장소에 자동차 보닛(bonnet)을 열어 둔 채 일주일 동안 방치를 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반면, 그 다음 실험에서는 자동차 뒤쪽 창문을 깨뜨린 후 방치 했더니 불과 10분도 안 되어 배터리와 타이어를 빼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다른 실험은 비어 있는 주택 건물에 창문을 깨뜨렸을 때의 상황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창문이 깨지기 시작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건물 전체의 유리창이 깨지고 벽은 낙서로 지저분해졌다. 경미한 범죄라도 초기에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의 핵심이다.

최근 법무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범죄 불안감을 많이 일으키는 장소로 응답자의 55%가 어둡고 후미진 골목을, 26%가 지저분한 거리라고 답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장소가 주는 환경적 기반을 통해 안전한가 또는 위험한가를 판단한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범행 장소를 물색할 때 어둡고 후미진 골목, 지저분한 장소를 선택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깨진 유리창’ 이론은 도시환경 범죄예방의 롤 모델이 되어 세계 각국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도 생활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는 밝은 빛을 비추는 가로등과 네온 등을 설치하고 담장에는 벽화를 그리며 계단에는 건강 지도와 야광 스티커를 붙인다. 또한 골목 자투리 공간에는 꽃밭 등을 만들어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아파트와 학교, 주택가의 놀이터에는 낮은 조경수와 담을 설치해 향시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두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좋은 예이다.

•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경찰학 박사)



독자 투고

## 고마움 가득한 여름날

내게 변함없는 보물이자 비타민인 큰 아이. 자라면서 겪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아이 혼자 감당할 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지켜봐야만 했던 나는 늘 죄인이었다.

긴 병치레, 중학교 때부터 준비했던 대학 진학문제... 그토록 원했던 대학을 다니다 자퇴하고 다른 학교 1학년으로 재입학하는 쉽지 않은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군대까지 다녀온 스물일곱 살의 대학 3학년인 멋진 청년. 다행히 적성에 맞는지 복수 전공까지 하며, 내년 상반기 합격을 목표로 하는 시험 준비로 바쁘다.

평소 농담조로 “아빠 능력 안 되니 학비는 장학금 받아 스스로 해결하라”곤 했다. 나의 학창시절엔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장학금. 그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며 대리만족이라도 느끼고 싶은 욕심인 걸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더 큰 부담이었던지, 얼마 전 기말고사 기간엔 더 밤이 늦도록 책상을 지켰다.

1학기를 마친 요즘, 오전에 잠시 운동하는 것 외에 인터넷 강의 수강 등 공부에 빠져 지낸다. 어제 오전에는 운동하다 말고 갑자기 뛰어나와 컴퓨터에 앉더니 정신없이 정보 검색을 하는 아이. 평소와 다른 행동에 놀라 “무슨 일 있냐?”고 하니 “성적이 발표됐다”고 한다. 잠시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다 침묵을 깨며 힘들어간 목소리로 “아빠”를 부른다. 부르는 것도 모자라 내 손을 잡아끌고 가 모니터를 보여준다. 전 과목 A+.

“정말 다행이야”라며 시크하게 웃는 아이, 그리고 그런 아이가 멋지고 자랑스러워 “고맙고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아빠. 이제 나보다 더 넓어진 등도 함께 두드려줬다. 아들 덕분에 기분 좋은 퇴근길, 아이가 현관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준다. 손에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금일봉이 들려있었다. “아들 정말 좋겠네. 든든한 할머니 계셔서...”

말꼬리가 흐려지며 가슴 한 쪽이 뭉클해진다. 당신 손주라면 언제나 “예스”인 내 어머니. 손주 전화에 좋으셔서 쏟아지는 장대비를 뚫고 단숨에 뛰어 오신 것이다.

“좋아하시는 노각채도 무쳐냈는데, 저녁도 안 드시고 그냥 가셨다”며 섭섭해하는 아내에게 “자기 수고스럽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셨겠지”라며 다독였다. 자신의 큰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며 바르고 멋진 청년으로 자란 두 아들이 고맙고, 나에게 또 손주에게 영원한 ‘응원단장’이신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또 고맙고, 집안 두루 두루 편안하게 건사하느라 애쓰는 알뜰한 아내가 있어서 또 고맙다. 생각해 보니 나에게 온통 고마움 가득한 감동스런 여름날이다.

• 이명식(단원구 광덕서로)

